

# 근대초기 『목민심서』의 수용과 전근대 실용서의 근대적 고전 되기

안 승택\*

- I. 머리말
- II. 연구의 배경
- III. 근대적 계몽의 약으로 재발견된 『목민심서』의 실용성
  - 1. 근대적 실용교양서로서의 자리매김
  - 2. 실용성 강조의 배경과 실용성의 추상화
- IV. 민족적 문화자산으로 재발견된 『목민심서』의 독성
  - 1. 민족주의에 대하여 작용한 독성
  - 2. 식민주의에 대하여 작용한 독성
- 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유교이념과 조선후기 현실에 입각한 전근대적 실용서인 『목민심서』가 그와는 다른 근대초기의 맥락에서 근대사회를 위한 처방을 담은 근대적 고전으로 수용되었다는 인식 아래, 이 재탄생의 과정을 ‘약이면서 독이라는 이중적 속성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목민심서』는 근대초기 계몽주의 지식인들에 의해 근대사회를 위한 실용적 처방을 담은 책으로 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저작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실용성은 그 구체성이

---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조교수 / lacuna@knu.ac.kr

탈각되고 추상화되었다. 이 추상화를 통해 『목민심서』는 한편 조선의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에 의해 조선사회에 내재적 개혁의 동력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일본인 식민자들이 조선왕조의 몰락과 식민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다. 이는 근대적 수용의 맥락에서 조선의 식민자들과 피식민자 양측에게 『목민심서』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적 효능은 정약용이 실용서로서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생생하게 기술함으로써 이 책에 부여한 역설적 이중성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중적 성격이 근대초기의 담론투쟁 현장에서 발효됨으로써, 『목민심서』는 1930년대에 조선학운동을 이끄는 근대적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 주제어

---

계몽주의, 민족주의, 식민주의, 담론투쟁, 역설적 이중성

##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유교이념과 조선후기 현실에 입각한 전근대적 실용서인 『목민심서』가 근대초기의 맥락에서 근대사회를 위한 처방을 담은 고전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 저술의 의미 변형과 전유의 과정을 통해 19세기 지식지형과 20세기 지식지형 사이에 어떤 ‘지적 가교’가 놓여 있었는지 그 성격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 가교’란 단순히 ‘이 쪽에서 저쪽으로 통과하는 길’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의 담론투쟁 현장이었던 것으로 이 글은 이해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로 근대초기의 신문·잡사·서적에 나타난 기사·논문·광고들을 검토하고, 이 자료들에서 『목민심서』에 부여된 의미와 그 위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 책이 근대의 고전이 되는 과정과 그 함의가 무엇이었는지 찾아내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전근대적 실용서가 근대적 고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약이면서 독이라는 역설적 이중성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는 고전이 탄생하는 과정은 그 저술이 애초부터 지니던 이렇다면 ‘별남’ 성격이 발현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명하고 지당하며 순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여러 사회세력이 그 ‘별남’을 자신을 위한(상대에 반하는) 것으로 전유(appropriation)해 나가는(귀결이 미정인) 지적 각축전이었다는 이해에 따른 것이다. (적어도) 『목민심서』의 경우 이 ‘고전이 되기 전부터 지녔던 별남의 발현’이란, 애초의 저술 과정에서 그 안에 심어졌(지만 거의 인식되지 않)던 약이면서 독이 되는 이중적 속성이 그 약리(藥利)와 독해(毒害)를 동시에 발하면서 자신의 형상을 갖춰가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여러 세력들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중에, 당초 저술되며 주요 논점으로 심어진 것들뿐 아니라 애초의 저술에 없었거나 다른 형태로 존재했던 것들까지 새롭게 근대적 의미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sup>

---

1) ‘약이면서 독이 되는 역설적 이중성의 발현’이라는 문제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병리학

이와 같이 한 저술 내에 잠재되어 있던 역설적 이중성에 특정 형상이 부여되는 현장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한 시대에 어떤 저술이 깊어지게 된 사회적 과제와 긴장들, 이를 위해 새로 부여받은 의미와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시대의 ‘고전’들이 보다 각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 내용은 미천하더라도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작업을 통해 한국학의 발전 도상에서 일제초기라는 국면이 기여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일부나마 드러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한다. 종래 이 시기는 한말의 애국계몽운동기와 1930년대의 조선학운동기의 사이에서, 『목민심서』의 연구는 물론 실학사·실학사상 연구 전반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 글은 『목민심서』가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상정되었던바 근대초기의 현장이 어떤 것이었는지 찾아냄으로써, 그것이 『목민심서』의 20세기적인 존재방식을 어떤 식으로 조건지우고 있었는지를 갈라내보려는 기획이기도 하다. 지식의 존재방식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규정하고 또 현장의 존재방식이 지식에 대한 이해를 규정할 것이라는 인식

---

적 상상’에 관한 조르주 칸길렘, 조내던 해리스, 로베르토 에스포지토 등의 작업에서 영향 받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나 공동체의 기능이상이 주로 내부의 원인(체계 자체의 불균형이나 오작동)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믿는 전근대의 병리학적 사고와 달리, 근대적인 그것은 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자-사회적 병원체-에서 기능이상의 원인을 찾으며, 이 침입자-병원체들은 내부에 이상을 일으키며 독으로도 작용하지만 동시에 내부에 항체를 형성하여 면역력을 갖게 함으로써 약이 될 수도 있는 존재로 상정된다. 시스템에 이질적인 존재들, 즉 사회적 병원체는 독이 되기도 하지만 약이 되기도 하므로 늘 독이면서 약이고, 따라서 절대적인 약도, 절대적인 독도 없는 상태에서 이 병원체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상과 병리가 갈라지게 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칸길렘, 조르주, 『정상과 병리』, 한길사, 1996; Harris, Jonathan Gil, *Foreign Bodies and the Body Politic: Discourses of Social Pathology in Early Modern England*, Cambridge Univ. Press, 1998; Esposito, Roberto, *Immunitas: The Protection and Negation of Life*, Polity Press, 2011. ‘공동체에 대한 병리학적 상상’에서 이와 같은 정상과 병리의 경계가 자명하지 않은 상태로의 변화는 브루노 라투르가 지적한 바 ‘서로 상반된 논리들이 모순 가운데 병존하는 혼종적 근대성’을 산출하는 주요한 기제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라투르, 부르노,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아래, 지식과 현장의 관계를 보다 긴밀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일환 안에 이 글이 자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연구의 배경

근래 들어 다산과 그의 학문에 대한 다산 사후의 ‘근대적 수용/호명’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논의들이 여럿 제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9세기 중반까지 조선의 ‘전근대적 수용’의 맥락에서는 목민관(과 그 지방자)이나 그 보좌진인 서리들의 필독서 또는 필휴서로서 『목민심서』가 지녔던 실용성이 그 유통·확산의 근본동력이었음이 지적되었다.<sup>2)</sup> 이에 따르면, 『목민심서』나 『흙흙신서』와 달리 같은 다산 경세서 중에서도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세유표』는 덜 활용되었고, 다산의 경학은 철저히 외면되었으며, 19세기 후반 열렬히 다산을 찾았던 천주교도나 농민군 지도층을 위한 내용은 실은 다산 저술 내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형편이었다. 동학농민군이 읽고 전봉준 일파를 선동하였다고 전해지는 다산의 텍스트가 『경세유표』 자체가 아니라 그 ‘별본’이었다고 구전·기록된 일<sup>3)</sup> 자체가 이러한 상황의 반영일 것이다. 결국 19세기 중반까지 다산의 수용은 ‘경학’은 물론 ‘경세’보다도 ‘실용’ 위주였고, 고금(古今)을 찾아 망라하고 간위(奸僞)를 도려내 없애려던<sup>4)</sup> 다산의 『목민심서』 저술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

반면 개화기 이후 ‘근대적 수용’의 맥락에서는, 근대초기의 애국계몽적 지

2) 고동환, 「19세기 후반 지식세계의 변화와 다산 호출의 성격」, 『다산과 현대』 45합본호, 2012; 김진균, 「근대계몽기(1894~1910)의 다산 호출」, 『다산과 현대』 45합본호, 2012, 51~54쪽; 김호,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가: 20세기 초 주자학자 조공섭의 정약용 비판」, 『한국실학연구』 32, 2016, 429~431쪽.

3) 최익한(송찬섭 엮음), 『실학과와 정다산』, 서해문집, 2011, 391쪽; 500쪽.

4) 丁若鏞, 『文集』卷16, 「自撰墓誌銘」, 《定本 與猶堂全書》 3卷, 278쪽, “牧民者 何也? 因今之法而牧吾民也. … 搜羅古今 剔發奸僞 以授民牧 庶幾一民 有被其澤者, 鏞之心也.”

식인들이 서양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 조선의 근대적 계몽사상가로서 다산에 주목했고,<sup>5)</sup> 이것이 주로 1930년대에 민족주의적 감수성과 본격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목민심서』를 비롯한 다산의 저술들이 ‘조선학’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서 재평가되었다고<sup>6)</sup> 그 논의를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다산에 대한 근대적 수용의 과정에서 다산에게 반주자학적·실용적·실증적·실천적 사상가로서 조선후기 실학의 최고봉이자 서양문화 수입의 선구자이면서 반봉건적 민족주의 지식인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런 재평가 흐름의 정점에 1935년의 다산서거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민족주의 진영의 다산 현장 흐름을 회의적·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음도 지적되었다.<sup>7)</sup>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오랜 공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업들로, 높은 학술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이 글의 문제의식에 따라 평가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논의는 대개 다산의 저술이 지니는 이데면 ‘약’으로서의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용성에 대한 것이든, 계몽성에 대한 것이든, 민족의식에 대한 것이든, 그 ‘독’으로서의 측면은 일종의 부작용처럼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애초에 독을 지니지 않았다면 약으로도 쓰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추급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목이 “1930년대 다산의 발견이 일제의 문화정책과 전략에 걸려든

- 
- 5) 신용하, 「19세기 말 장지연의 다산 정약용의 발굴」, 『한국학보』 29(1), 2003; 김진균, 앞의 논문.
- 6) 박홍식, 「일제강점기 정정보·안재홍·최익한의 다산 연구」, 『다산학』 17, 2010; 최재목, 「일제강점기 정다산 재발견의 의미: 신문·잡지의 논의를 통한 시론」, 『다산학』 17, 2010; 최재목, 「1930년대 조선학 운동과 ‘실학자 정다산’의 재발견」, 『다산과 현대』 45 합본호, 2012; 김치완, 「정정보의 다산-실학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와 실학』 50, 2013.
- 7) 박홍식, 앞의 논문, 83~84쪽; 최재목, 앞의 논문(2010), 114~120쪽; 신주백, 「1930년대 초중반 조선학 학술장의 재구성고 관련한 시론적 탐색: 경성제대 졸업자의 조선 연구 태도 및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26, 2011, 91~98쪽; 최재목, 앞의 논문(2012), 95~96쪽.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물은 점은 주목된다.<sup>8)</sup> 그의 논점은 1930년대의 조선학운동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질문은 그 앞의 시기로 끌어올려져 다시 물어질 필요가 있고, 그 전제 위에서 그럼에도 『목민심서』가 근대적 고전으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둘째, 각 논자들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겠으나, 결과적으로 전근대에는 유교적 국가관에 입각한 실용서적으로 탐독되던 『목민심서』가 개화기 이후에는 민족주의적 계몽서적으로 전면 탈바꿈한다는 논의로 정리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 필요 이상 단절의 벽을 만드는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1930년대 조선학운동의 다산과 『목민심서』 재발견이 다소 탈맥락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 1930년대와 그 이후 조선(학)/한국(학)의 상황이 ‘뜬금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30년대 이전 시기에 놓였던 ‘가교’의 존재방식과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차 드러나겠지만, 이 ‘가교’의 복판에서 이미 일본인들이 다른 식으로 이 텍스트를 ‘계몽’에 활용한 흔적이 보이며, 이는 애국계몽운동기 지식인들이 한말시기 이 텍스트를 발굴해냈던 방식에 연유하는 것처럼도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이 ‘약이면서 독’이라는 문제의식을 떠올리게 되었던 이유이며, 이와 같은 몇 번의 ‘뒤집어짐’, 그리고 식민지와 피식민자 상호 간의 ‘대항적 의미화’를 통해 1930년대의 작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근대초기에 ‘근대적 고전’으로 재발견되는 과정에서 『목민심서』는 여전히 전근대와 다른 의미에서 ‘실용적임’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며, 이 근대적 맥락에서의 실용성이 무엇이었던지도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근대 초기적 실용성이라는 약효를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한 독

8) 최재목, 앞의 논문(2012), 96쪽. 이에 대한 그의 답변 요지는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의 실학 호출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 즉 허학(虛學)에서 벗어나 황국신민화, 흡수동화, 병참기지 구축 등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여기에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기 원했던 일제의 요구에도 부합하는 지식-문화 코드였을 수 있으며, 다산을 호출함으로써 조선 자신은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도 했지만, 한편 일본의 무언의 지식-문화 전략 속으로 자발적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성—다산 자신이나 그의 저술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아울러 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Ⅲ. 근대적 계몽의 약으로 재발견된 『목민심서』의 실용성

#### 1. 근대적 실용교양서로서의 자리매김

이 장에서는 19세기 이래 『목민심서』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근대초기의 상황에서 그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목민심서』에 대한 근대 이전 맥락에서 실용서로의 인식과 근대 이후 맥락에서 고전으로서의 인식 사이에 과도한 의미 단절이 전체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실용성의 인식이 약간의 전도를 거쳐 근대적·민족적 고전으로 이 책이 재발견되는 데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조선후기뿐 아니라 한말시기의 맥락에서도 『목민심서』를 둘러싸고 그 실용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최초의 인쇄본인 『목민심서』 광문사본(1902)의 서문과 후기, 이에 즈음하여 발간된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 상에 이를 다룬 기사와 논설, 그리고 『목민심서』의 핵심만을 빨리 요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빼고 본문만을 뽑아 간행한 『목민심서정문(牧民心書正文)』(박문사, 1904)의 간행사 등을 살펴보면, 이 책이 지니는 여러 의의와 함께 그 실용성에 대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목민관의 금과옥조일 뿐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길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만국이 교통하는 오늘날에도 어긋남이 없어 실로 우리 한국 정치학의 제일가는 신서(新書)’라거나,<sup>9)</sup> ‘풍속의 순수하고 뒤섞임, 일의 본뜻과 거짓, 백

9) 『황성신문』 1902.5.19., 「廣文社新刊牧民心書」, “蓋其書】…不特爲牧民者之金科玉條라 抑推而至於治國之道하야도 亦不外乎是하리니 雖行之於萬國交通之今日이라도



성의 병고와 아전의 간활함이 거울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보이므로 목민관 된 자가 반드시 두고두고 익히고 따르면서 잃지 말아야 할 바라는 식이다.<sup>10)</sup>

1900년대 초 시점에서 이런 실용서로서 『목민심서』 읽기의 권유는 단지 기성 지식인을 향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학교교육과 인재선발 등에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령 『목민심서정문』을 펴낸 전 용담군수 김우식은 내부대신 이도재에게 『목민심서』를 교재로 삼는 학교를 만들고 그 성적에 따라 목민관을 선발하자는 제안을 올렸다.<sup>11)</sup> 여기에서 말하는 ‘『목민심서』를 항상 곁에 두고 되풀이 읽어야 할 사람’이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의 관리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런 서술은 개화기 이전의 19세기 조선 상황에서 『목민심서』가 실용서적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던 상황과,<sup>12)</sup> 그 인식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위 글을 작성한 김우식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학교신설에 따른 기부출연 시 책을 기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목민심서』가 자주 포함되었다. 또 그 목록을 보면, 함께 기증된 도서들이 모두 기본적인 실용교양서라는 점도 눈에 띈다.<sup>13)</sup> 1900년대, 적어도 그 전반까지의 맥락에서, 『

豈有柄鑿齟齬之弊哉이 實我韓政治學中第一新書也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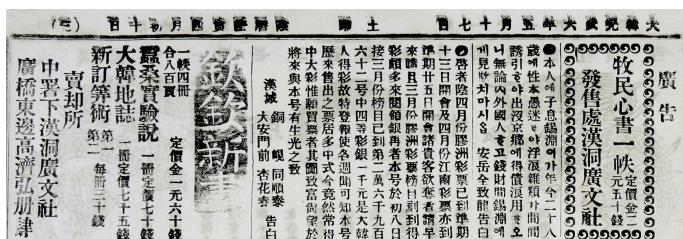
10) 金字植, 「不講牧民心書者 毋得補守領論」, 『牧民心書正文』, 博文社, 1904, 81쪽, “惟牧民之要訣 爲政之捷徑 未有如牧民心書之詳且盡者也 俗之粹駁 事之情僞 民之疾苦 吏之姦猾 如物照鏡 瞭然在目 爲牧者 宿講此書 遵而勿失…”

11) 『황성신문』 1904.7.15., 「請設牧校」, “前郡守金字植氏가 字牧政治에 留心하여 牧民心書正文을 出資多刊하여 國中에 廣佈하고 牧民學校를 設立하여 將來守令을 教育하조고 內部에 獻議하얏더라.”; 金字植, 앞의 글, 81-82쪽 “…伏願閣下 革其舊染確定新章 擇人必以牧民心書 如講規然考試其材擢以出宰 而母數遞易使之便宜… 觀弊絕風清民康物阜之效矣… 謹獻芻言若蒙採用 則國家幸甚人民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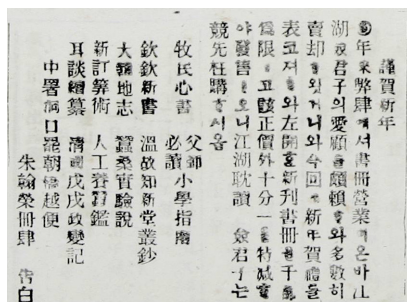
12) 고동환, 앞의 논문, 36~37쪽; 김태영, 「목민심서의 역사적·현실적 소임」, 『다산학』 28, 2016, 13쪽.

13) 『황성신문』 1906.8.11., 「會興學校義捐金額과 人名은 左와 如함」, “…前叅書官 尹鎬烈 大東紀年五冊 世界年契一冊 公法會通三冊 大韓地誌二冊 萬國地誌三冊 牧民心書四冊 泰西新史二冊 中日畧史一冊 俄國畧史一冊 美國獨立史一冊 埃及近世史一冊 精選算學解式并一冊 算術新書二冊 新訂算術三冊 日語襟誌五冊 世界全圖四件 最新韓國地圖二件 西禮須知一冊 眞墨四同…”; 『황성신문』 1906.9.25., 「咸北吉州郡私

『목민심서』가 지닌 힘은 무엇보다도 그 실용성에 있었다.



〈그림 1〉 『목민심서』 및 광문사 간행도서 초기 광고(1902)



〈그림 2〉 주한영책사 도서광고(1903)

뿐만 아니라, 당대 신문지상에서 『목민심서』의 광고가 실린 지면들을 검토 하면, 위 신설학교 기증도서목록에서 관찰된바, 이 책이 지닌 당대적 실용성의 함의가 분명히 드러난다. 간행과 함께 광문사에서 『황성신문』 지상에 『목민심서』 단독광고를 시작했는데, 이때 기존출판도서들은 별도로 함께 묶어 광고를 게재했다(〈그림 1〉). 함께 광고된 책은 다산의 『흠흠신서』 외에, 『잠상실험설』, 『대한지지』, 『신정산술』 등 실용서였다. 1903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출판도서와 함께 판매처를 주한영책사(朱翰榮冊肆)로 명기한 〈그림 2〉

立修進學校補助員, “...金汝重 東國歷史一秩 大韓地誌一秩 尋常小學一秩 刑法大全一卷 牧民心書一秩 政治學新論一卷 進明彙論一卷 大東紀年一秩 尺牘完編一秩 交際新例一卷 地球一個 大韓輿地圖一張 世界全圖一張...”

와 같은 광고가 시작되는데, 이 양상도 다르지 않다.

이후 광고는 주로 『대한매일신보』에 나타나는데, 아래 <표 1>은 위의 것을 포함해 1900년대의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목민심서』 광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 광고에서 도서배열순서는 출판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광고 중 “기타 내외국 각항서적이 구비함”이라는 문구가 있고, 또 목록에서 사라졌다가 재등장하는 서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지만) 광고는 판매도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고도서의 숫자가 늘면서 나타나는 광고목록 포함여부 및 배열순서의 변동은 해당 책에 대한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관심도를 반영할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이 표에는 ‘총수’와 ‘순위’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전자는 해당 광고에 나열된 도서의 전체 숫자를, 후자는 그 목록 중에 『목민심서』가 몇 번째로 올라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표 중 ‘상위 5권’이란 광고도서의 목록 중에서 가장 위에 노출된 도서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 광고 중 배열순위 상위 5권씩을 뽑은 것이다. 또한 일단 짜진 조판을 재활용하기 때문인지, 한 번 등장한 광고는 짧으면 몇 차례, 길면 몇 달에 걸쳐 똑같은 식으로 게재되었다. ‘게재기간’이란 이렇게 목록과 그 배열순서가 같은 광고가 올라온 기간을 말한다.

<표 29> 1900년대 신문지상 도서광고 중 상위순번도서와 『목민심서』

광고도서목록 상위 5권	총수	순위	판매처	광고매체	게재기간
(목민심서 단독광고)	-	-	광문사	황성신문	1902.5.19. -1902.10.30
목민심서, 부사필독소학지남, 흠흠 신서, 온고지신당초초, 대한지지	5	1	주영한책사	황성신문	1903.2.5. -1903.2.14
형법대전, 목민심서, 이담속찬, 온고지신당초초, 부사필독소학지 남	7	2	김상만서포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6.3.10. -1906.3.24
형법대전, 목민심서, 이담속찬, 온고지신당초초, 부사필독소학지 남	11	2	김상만서포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6.3.25. -1906.8.9

형법대전, 목민심서, 이담속찬, 은고지신당종초, 부사필독소학지남	16	2	김상만서포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6.8.10. -1906.8.14
동국역사, 법란서신사, 청국무술정변기, 파란말년전사, 미국독립사	21	10	김상만서포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6.8.15. -1906.9.13
동국역사, 대한지지, 대동기년, 역사집략, 만국사기	22	7	고유상서포	황성신문	1906.8.22. -1906.9.25
동국역사, 법란서신사, 청국무술정변기, 파란말년전사, 미국독립사	21	10	김상만서포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6.8.29. -1906.9.9
동국역사, 법란서신사, 청국무술정변기, 정치법론, 월안만국사	21	10	김상만서포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6.9.15. -1906.11.13
대한지지, 만국약사, 동국역사교과, 법학통론, 형법대전	28	6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6.12.23. -1907.1.13
대한지지, 만국약사, 동국역사교과, 법학통론, 사민필지	29	6	대한매일신보사	대한매일 신보	1907.1.15. -1907.1.24
동국사략, 보통교과동국역사, 신정동국역사, 역사집략, 대동기년	116	34	대동서시 중앙 서관 회동서관	대한매일 신보	1907.10.17. -1907.11.17

\* 1906.8.15-9.13 기간 김상만서포의 도서광고는 목록 하위순위 도서들에 두 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광고도서 총수와 목민심서의 순위 변동이 없으므로 같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참고로, 8월 29일자부터는 18번째 도서로 『형법대전』 대신 『정치학』이, 9월 11일자부터는 『정치학』 대신 『정치학신론』이 포함되었다. 같은 일은 1906.9.15-11.13 기간에도 있어, 9월 20일자 광고부터는 18번째 순서에 『정치학신론』 대신 『세계지정치』가 포함되었다. 『정치학』 『정치학신론』 『세계지정치』는 같은 장르의 책으로, 제목만 바꾼 같은 책일 수도 있다. 또한 1906.12.23-1907.1.13 기간 중 1월 9일자부터는 총수가 29권으로 늘고 『만국약사』가 2번째와 5번째에 두 번 나타나는데(그림 3), 조판오류가 아닌가 한다.

이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① 『목민심서』는 이들 광고도서 목록에 일찍 등장하였으면서도, 이후 광고대상 서적의 종류가 늘고 그 성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부 서적이 그 광고에서 사라져가는 중에도 상위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한 단에 5권씩 도서를 열거한 난외광고(<그림 3>)의 경우, 지면 특성 상 6, 7번 순위는 2단의 첫째 혹은 둘째 자리가 되므로 4, 5순위보다 오히려 노출정도가 강한 위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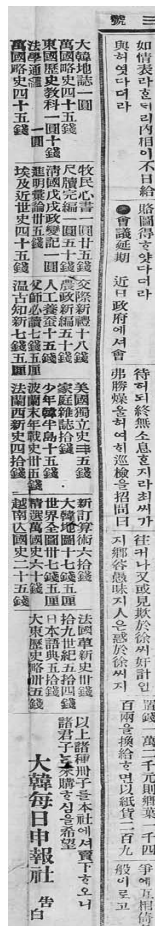
② 광고도서는 그 양과 성격이 다양해지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실용교양

서' 범주에 중심이 있었다. 광고목록 상위순번을 보면 한국의 역사와 지리, 법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하위 쪽으로 내려가면 농업서, 산술서, 예절서, 어학서식서 등이 목록에 꾸준히 추가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③이 '실용교양서'의 범주 안팎에서, 현재의 도서관장으로 파악하였을 때 사회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는 법과 정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당대 조선의 지방사회정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에 적합하게 처신하는 데에도 유용한 '실용교양 정치학 서적'이라는 의미가 근대초기 『목민심서』에 부여되던 배후에, 법과 정치에 대한 당대인들의 이와 같은 강력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실용성 강조의 배경과 실용성의 추상화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목민심서』의 이런 힘은 그것이 문헌 속 사적(事跡)과 다산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지방정치의 실제현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고 보아야한다. 그런데 아무리 늦춰 잡아도 19세기 초의 상황을 담은 『목민심서』 속 현장사례가 20세기



<그림 3>

14) 위 목록상위 5권에 열거된 외에, 『목민심서』와 함께 1900년대 신문지상 도서광고에 등장하는 실용서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양잠삼협설』, 『신정산술』(이상 1902년), 『인공양잠감』(1903년), 『정선산학』, 『척독완편』, 『농정신편』, 『일한회화사』, 『교제신례』, 『진명휘론』, 『일본어전』(이상 1906년), 『사민필지』, 『의회통용규칙』, 『상업대요』, 『잠상휘편』, 『재상전서(부포도재배급양주법)』, 『한어대성독습』, 『영어독본』, 『일한통화』, 『일어독습』, 『한일회화사전』, 『독수속성일한회화』, 『산술신서』, 『회사법』(이상 1907년). 그 외 각종 교과서, 지도, 역사지리서, 법률서 역시 실용서로 간주될 수 있다.

초 상황에서 이와 같이 ‘현장적 실용성’을 지닌 것으로 읽혔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민심서』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지방통치의 폐습이 여전히 현실의 일부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가령 1896년 경상도 고성 군수 이황종이 서가·아전과 결탁해 41,550냥을 늑탈한 일이나,<sup>15)</sup> 1898년 평안도 구성군수 오일영이 9개군을 순행하면서 무명잡세를 거둔 일,<sup>16)</sup> 1904년 전라도 강진군수 강영서가 탁지부에 진전(陳田)이라 허위보고하고 횡령하다가 소요가 일자 비선을 통해 경위원(警衛院)의 비밀훈령을 얻어내 주동자를 잡아들인 일<sup>17)</sup> 등은, 『목민심서』에서 보던 지방행정의 문란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기사로 읽힌다. 이런 사례들은 더 많이 늘어나갈 수 있다.

일제에 의한 통감부 지배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전라남도 관찰사 심상익은 관직매매에 의해 치부한 일로 유명한 인물임에도 발탁되었고, 동래군수 윤원구는 내부대신의 관직매매 중개인으로 악명이 높은데도, 내부대신의 잡기친구인 영광군수 유진찬은 부패전력이 화려한 인물인데도 임명되고 있었다.<sup>18)</sup> 궁내부 주사 최상익은 전임자와 협잡하여 현금 천여 원을 늑탈하고 일본인에 목장토를 팔아넘겼고,<sup>19)</sup> 평안남도 관찰사 박중양은 과부의 땅을 군용지라 칭해 징세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부를 잡아들여 태형을 가한 뒤 이를 시정하라는 조사위원의 명도 무시했으며,<sup>20)</sup> 안성군수 김영진은 민력을 동원해 시장에 방축공사를 실시하고 그 낙성연에서 일왕 만세를 창했다가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에게 치안방해로 잡아들이겠다고 위협하는 형편이었다.<sup>21)</sup>

한편 1906년에는 황해도 재령군에서 관청사령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부랑

15) 『독립신문』 1896.6.25., 「경상도 고성 군수 리황종씨가」.

16) 『황성신문』 1898.10.28., 「雜稅郡守」.

17) 『황성신문』 1904.3.8., 「康倅貪虐」.

18)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6.8.4., 「噫라 內部大臣」.

19)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7.3.10., 「擅賣國土」.

20)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8.1.1., 「夜叉觀察」.

21) 『대한매일신보 국한문판』 1909.7.13., 「又試一鋒」.

배 순교 20여 명이 민간에 토학(討虐)을 하여 부자와 빈민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흥미로운 것은 『목민심서』에도 실렸던 조선후기식의 상투적 표현 그대로 “사람들이 순교 보기를 호랑이 두려워하듯 한다”고 적는 점이다.<sup>22)</sup> 단지 표현상의 지속을 넘어, 향촌사회 하급관리들의 간활함, 수령의 무능 또는 부패, 이들과 결탁한 중앙 고위층의 부패와 탐욕 역시 『목민심서』가 지적하는 상황 그대로였다. 향촌사회에서 지방관과 아전의 탐학에 대한 비판은 스케일을 바꿔 국가에 대입할 경우 고위관료들의 탐학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이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목민관이 무엇을 해야 이를 타개할 수 있는지를 적은 『목민심서』 속의 현실을 아주 과거의 일이라 할 수 없었고, 그 가운데에서 수령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적은 책이라는 점에서, 19세기 말과 1900년대 내내 『목민심서』는 ‘실용적’인 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런 한편에서 이 시기에 확인되는 『목민심서』의 실용성은 명백히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했고, 따라서 그 내용 중 강조점이나 맥락과 관련하여 일정한 전도(顛倒)가 필요했다. 가령 『목민심서』에서 호강(豪強)의 포악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다산은 “호강의 포악함이 하민(下民)에게 독을 끼치고 병들게 하는데 그 구멍이 아주 많아 낱알이 들 수가 없다.”면서, 궁장토, 둔전, 부호의 패점, 벌열의 입안 등을 ‘호강 포악’의 예로 거론한다. 그런데 이 논의의 귀결이 흥미롭다. 향촌사회의 다른 폐단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방전을 내놓고, 하다못해 별다른 처방이 없는 경우 ‘그냥 두라’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을 이어오던 다산이, 이 ‘호강의 해독’에 대해서는

22) 『대한매일신보』 1906.9.9., 「순교불법(巡校不法)」, “...大小民호인어 見其巡校를 如畏虎狼야 該徒中에 或以面求乞이라도 不敢拒絕호고 以書請貸라도 不敢却却호야 饒戶는 避居他郡호고 貧家는 日離失巢호야 遠近坊曲이 蕭然殘敗호야...” 『목민심서』에는 예를 들어 군교(軍校)는 ‘거칠고 사나운 자들’이라 “상인들은 이를 보고 두려워하기를 호랑이와 같이 한다”거나(『牧民心書』, 「吏典六條」 馭衆, 『역주 목민심서』 II, 100쪽), 문졸(文卒)은 ‘소민(小民)들의 호랑이’라 “끝내 호랑이를 민간에 풀어놓아서 안 된다”와 같은 구절이 있다(『牧民心書』, 「奉公六條」 貢納, 『역주 목민심서』 I, 280~281쪽).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습”이라고 적는 데 머물면서 서둘러 서술을 마감하기 때문이다.<sup>23)</sup>

이런 애매함이 우연이 아닌 점은, 다른 곳에서 ‘궁장토와 둔토가 나라를 좀먹는 폐단’이 점점 더 커진다면서도, “한 고을의 수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그 경계를 삼가 지켜서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할 뿐”이라고<sup>24)</sup> 적은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요컨대, 수령이 어찌 다룰 수 없는 막강한 외부의 독성은 구멍이 어디인 줄을 알면서도 그저 ‘경계를 분명히 지킴’으로써 더 확장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 저변에 있다. 이는 다시 아전의 간활함을 비판하면서도 다산이 그 폐단의 기원을 아전의 생계자원 및 업무비용 부재에서 찾았던 점과<sup>25)</sup> 호응하며, 다산의 지방사회 분석이 지닌 독특한 입지를 만들어낸다. 즉, 지역사회의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직접 맞서지 않고 경계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를 구조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토착세력과 고도의 정치적 거래

23) 『牧民心書』「刑典六條」禁暴, 『역주 목민심서』 V, 104쪽.

24) 『牧民心書』「戶典六條」田政, 『역주 목민심서』 II, 205쪽. 그 외에 「공전」에서는 궁방과 권세가, 토호가 사사로이 제방을 축조하는 것은 엄금하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수령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농아두되, 호강의 힘이 기존의 경계를 넘어 들어올 때는 그 경계를 단단히 지키려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牧民心書』「工典六條」川澤, 『역주 목민심서』 V, 226쪽.

25) 가령 『목민심서』는 향리들의 부패와 탐학을 두루 나열하며 비판한 뒤, “왜란 이래로 사대부의 녹봉이 박하여 집이 가난해지고 … 이에 탐학하는 풍조가 점차 커지고 아전의 습속이 그에 따라 타락”한 것이라면서(『牧民心書』, 「吏典六條」束吏, 『역주 목민심서』 II, 91쪽), ‘수령이 아전·향임의 한두 가지 숨겨진 부정을 듣고 이를 들춰내 떠들면서 자신의 밝음을 과시하는 것은 천하에 박덕한 짓’이고(『牧民心書』, 「吏典六條」察物, 『역주 목민심서』 II, 149쪽), 큰 횡령이 아닌 필묵값 정도의 농간질은 덮어둔 채 죄를 따지지 말아야 하며(『牧民心書』, 「戶典六條」稅法, 『역주 목민심서』 II, 213~217쪽; 223쪽), 군이 죄상을 밝힐 경우에도 부정한 향리 스스로 이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라고 한다(『牧民心書』, 「吏典六條」察物, 『역주 목민심서』 II, 153쪽). 이와 관련해 송양섭은 『목민심서』의 정치철학이 백성에 대해서는 공평과 경감을 추구하되 향리층에는 일정한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인시순속(因時順俗)의 지방재정론이며, 이는 다산 사유의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정리한 바 있다.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인시순속(因時順俗)’적 지방재정 운영론』, 『다산과 현대』 7, 2014, 175~222쪽.



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목민심서』가 내세우는 정치학의 핵심인 셈이다. 『목민심서』가 급진적·이상적·추상적이지 아닌 실용적·현실적·구체적 정치서인 까닭이 이런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보자면, 1890년대나 1900년대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가령 다산이 『목민심서』에서 공들여 분석한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영방안 분석은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고, 반면 다산 자신은 크게 거론하지 않으려던 외부의 호강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면에 부각되는 상황이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목민심서』의 실용성과 현실성은 그 구체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목민관이나 그 지방지는 물론 심지어 향리들조차 그 실용성·현실성을 예찬하며 앞 다투어 필사하던 『목민심서』의 처방은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도 아니었다. 근대사회에도 물론 토착의 하급관리나 중앙의 호강세력이 있고, 그 사이에서 탐학을 일삼는 목민관이 있었지만, 그 존재와 탐학의 메커니즘 자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말 시기를 벗어나 일제시기로 들어서면 그 차이는 더욱 커져갔다. 『목민심서』에 나타난 지방사회의 실정에 대한 묘사분석이 생생하다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감명을 불러일으킬 만했지만, 그것이 생생하다는 점과 실용성은 별개의 차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목민심서』의 처방들이 지닌 실용성·현실성·구체성은 보다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일반론으로 전도되어야 했고, 이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령과 이서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답한다는 『목민심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성이 탈각되면, 거기에는 그 상황의 복잡성을 초래한 ‘지방행정 문란상’의 생생한 기록만이 남게 되고, 이에 대한 비판이라는 다소간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실용성이 전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목민심서』의 근대적 독해에서, 지방관과 아전의 간활함, 포악함에 대한 다산의 비판이 부각되지만 그 원인으로서 아전의 경제적 자원이 부재했던 점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것도 그 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의 지방사회 시스템에 대한 대단히 구체적인 분석이 그 시스템 분석으로서의 구체성을 잃는 대신, 조선왕조의 구체적 사례들을 소재로 삼아 근대사회를 비틀어 이해하는 일종의 우화 또는 추상적인 정치학 이론서처럼 수용됨으로써, 『목민심서』는 국가와 민족을 공동체로 구성해 내려는 계몽주의나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수단으로서 ‘약’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근대 조선사회의 시스템 자체는 (여러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이를 지탱하려던 『목민심서』 자체의 의도와 달리)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나 기껏해야 우화적 소재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기에, 이는 조선의 지식인 뿐 아니라 식민자 일본인에게도 먹(이)기 좋은 ‘약’이 되었다.

### Ⅲ. 민족적 문화자산으로 재발견된 『목민심서』의 독성

#### 1. 민족주의에 대항해 작용한 독성

일제강점초기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선도서해제』에서 “이서(吏胥)의 통폐(通弊)를 제거하기 위해 힘쓴 책”이라고 평해진 것처럼,<sup>26)</sup> 일본인 식민자들의 『목민심서』에 대한 이해의 감각 역시 조선인들이 이 책을 읽어내는 방식과 일차적으로는 유사했다. 통감부 시기 조선에 건너와 경찰로 재직하다가 후일 영향력 있는 조선민속 연구자가 된 이마무라 도모에(今村綱)는 강원도 경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목민심서』를 발췌·번역하여 「목민심서초역」이라는 책자를 『경찰월보』의 부록으로 펴냈다. 이 책자의 역자서문에서 이마무라는 “목자(牧者)의 지침과 요체를 상세히 설명했고, 모든 정무에 빠짐이 없으며, 선생의 덕행, 박식, 재능이 종이 위에 펼쳐지듯 하여 그 경륜과 포부를 좇게끔 하니, 말하는 바가 인정에 부합하고 이론에 적중하며, 시폐(時弊)를 논하고 이간(吏奸)을 짚어내어 후련함과 절심함의 극치”라고 적었다.<sup>27)</sup> 그는 독

26)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 京城: 日韓印刷株式會社, 1915, 92쪽.

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속비근(平俗卑近)한 번역문체를 쓴 것이 “선현의 옥고”에 누가 될까 염려하는 등,<sup>28)</sup> 다산에 대한 최대한의 경의와 찬사를 표하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책자의 다른 서문에서 경무국장 마츠이 시게루(松本茂)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조선의 호적업무는] 폐해가 매우 많아서 심하게는 매년 형식적으로 이를 만들어 징세 기타 양민주구(良民誅求)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한다. … 한국에서 유명한 『목민심서』 … 의 저자는 목민관으로서 명성이 드높은 사람으로, 당시 호적의 문란에 분개하며 이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논하는 등 자못 시폐에 적응한 점이 있으니, 독자들이 이 책으로 집무 상의 편의를 본다면 … 한국백성의 지극한 행복이라 할 것이며, 저자가 이를 지하에서 듣는다면 반드시 동감의 사(士)를 얻었음에 기뻐할 것이다.<sup>29)</sup>

이 책자의 부록에서 이마무라는 다산에 대해 소개하며 광문사본 『목민심서』의 서문들을 인용했고, 또 위 서문에서 마츠이 역시 『목민심서』에 관한 한국 내 기존 평판에 의존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의 ‘목민심서론’과 ‘다산론’이 당대 한국인, 특히 애국계몽 지식인들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영향을 주고받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목민심서』로부터 새로운 논점, 즉 조선이 패망한 원인으로서는 행정문란이라는 요소를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높게 평가한 일본인(및 그 조선인 협력자들)이 이 책을 활용하여 문란한 행정을 바로잡는다면, 이는 ‘지하의 다산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 그 주장이었다. 민족문화의 자산으로서 애국계몽 지식인이 찾아낸 『목민심서』가 그 약효 안에 품고 있던 독성, 즉 조선왕조의 행정문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라는 요소를 식민자 일본인들이 식민화 정당성의 근거로서 새롭게 들추어내고 있던 셈이다.

27) 丁若鏞(今村軻 譯), 『民籍調査參考資料: 牧民心書抄譯』, 1909, 自序1쪽.

28) 같은 책, 自序1~2쪽.

29) 같은 책, 序2~3쪽.

이렇게 일제강점을 전후하여 민족문화의 자산으로서 『목민심서』가 지녔던 독성은 ‘조선적인 것’을 찾아 조선의 식민통치에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192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1921년 극렬한 조선 멸시적 식민주의 언론안문필가였던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는 일본에서 간행된 《통속조선문고 제1집》으로 『목민심서』 번역본을 출간했다. 그 역자서문에서 호소이는 “원래 이 책은… 정약용이 탐리(貪吏)의 포폐(飽弊)가 너무 심한 데에 분개하여 탐관오리를 경책(警策)하고자 저술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된다.”면서 그 교훈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① 통치자 계급 이외의 상민(常民)이 가정혹치(苛政酷治) 앞에 노예적 굴욕생활이라고 할 만큼 순종적인 점, ② 조선의 정치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어서 감사도 수령도 이예(吏隸)도 대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도둑이었다는 점, ③ 가소로운 형식적 위용과 소상적(塑像的) 예의가 대단히 고조되는 유교의 폐해가 극에 달해서 모든 일을 세세하게 의례와 규범으로 정했으면서도 그 중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 등이다.<sup>30)</sup>

같은 식으로 1921년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던 미즈노 렌타로(水野練太郎)는 「목민심서의 소개」라는 기고문에서<sup>31)</sup> “사람들은 걸핏하면 조선 과거의 악정을 입에 담지만 그 악정의 정도는 내지인의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잔혹하기가 언어도단[이며] … 아마도 세계 어느 종족에도, 역사에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좋다.”고 단언한 뒤, 『목민심서』가 이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적었다. 『목민심서』는 “지방행정장관이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나열한 것”이지만 “그에 더해 당시의 인정풍속이나 사회상태, 문화정도, 관민관계, 특히 조선인 통유(通有)의 심성 연구를 위해 더 없는 재료”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글 말미에 호소이가 곧 『목민심서』 일역본을 출간한다는 소식을 적어 넣었다. 단순히 인식의 유사성을 넘어, 이들은 서로 밀접히 소통하면서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을 것이다.

30) 丁若鏞(細井肇 譯), 『牧民心書』, 東京: 自由討究社, 1921, 牧民心書の譯述について 2~7쪽.

31) 水野練太郎, 「牧民心書の紹介」, 『朝鮮』 79, 朝鮮總督府, 1921.9, 52쪽.

이와 같은 인식은 언론안판료 등 비전문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전문적인 학자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민지 조선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동경제국대학에서 조선법제사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도 “반도에서 이조 최후의 학자로 정약용이 있었던 점은 충분히 찬사를 적을 만하다.”면서 같은 논의에 가담했다. “대개 국가 쇠퇴기에 왕왕 한두 사람 비상한 인물이 나와 국가의 이폐(利弊)를 논함으로써 연후 개혁에 옮기는 것이 상례인데, 이조말엽에 들어 한 사람 정약용이 나온 것은 반도의 행복이며 또 왕국의 불행인 일”이라는 것이다.<sup>32)</sup>

아사미는 위 언급과 함께 다산이 중인(中人) 출신이고 반계는 서류(庶流)라 적는 등, 그 글에서 조선에 대한 편견과 인물에 대한 오해가 산견된다. 그런 한편 다산의 『경세유표』를 두고 ‘반도인의 저작 중 그 위에 올 것이 없다’고 칭송하고도 있다.<sup>33)</sup> 특히 정전제(井田制) 논의는 ‘현대 사상에도 적합’한 것이고, 갑오개혁은 ‘정약용이 예기했던 개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형적이 적지 않은데, 만일 정약용의 저술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면 갑오개혁에도 참고할 바가 많았겠지만 실제로는 그 개혁의 내용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왔다’면서, 근대 사상을 선취하였으나 실제 널리 파급되지는 않았고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다산의 업적을 평가했다.<sup>34)</sup>

같은 동경제대 출신으로 조선총독부 촉탁을 거쳐서 경성제대 교수가 되어 조선사상사의 권위자로 인정받은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역시 다산을 두고 ‘유형원-이익-안정복으로 이어진 조선 경제학파의 발달이 그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면서,<sup>35)</sup> ‘국가 사회의 개량개조의 원리는 대부분 실의에 빠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니 조선에서는 남인이 그들이었고,<sup>36)</sup> 이들의 토지개혁론은 대다수 사족의 이해와 크게 상관이 없으니 당색 불문 사족 일반이 격렬

32) 淺見倫太郎, 『朝鮮法制史稿』, 東京: 巖松堂書店, 1922, 248쪽.

33) 같은 책, 329쪽.

34) 같은 책, 330쪽.

35) 다카하시 도오루(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320쪽.

36) 같은 책, 319쪽.

히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적고 있었다.<sup>37)</sup> 대다수 사족 지배층에게 다산의 개혁론은 실행이 안 되어도 그만이지만 된다고 해서 그들의 이해에 크게 위배될 것이 없었으므로, 다산의 사상이 급진적으로 보여도 그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별 관심이 생겨나기 어려웠다는 파악이다.

아사미와 다카하시의 평가는 다산의 토지개혁론이 조선사회의 지배질서에 위협적인 것이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한다. 다산의 지적 계보를 파악하고 그것을 범주화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중인이라 하고 때로 남인이라 하며) 정치적 소수자이기에 생각해낼 수 있는 개혁론이었고, 그럼에도 조선사회에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으며, 이 두 점이 조선사회의 결정적 한계였다고 보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한다. 결국 이들이 다산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일은, 그 업적이 높이 평가되거나 널리 실행되지 않았던 조선의 몰락과 식민화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다.

이는 다산이 『목민심서』 안에서 수령이나 감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구조적관행적 장벽들을 두고, 특히 아전이나 호강한 세력이라는 독을 마주하여 그것을 최대한 제어하는 가운데 활용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향촌사회 내부로 침입확산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했던 점과도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산이 외부에 존재하는 호강의 독이라 인식하면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들이, 이제 그 체제의 구조적 모순 중심부에서 해당 체제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징후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민족적 문화자산이 민족문화에 대해 독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셈이다. 앞 장의 논의를 잇는다면, 이는 결국 다산이 19세기 초 시점에서 조선사회에 대해 약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독이, 식민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근대적인 독성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런 독성이 일본인 식민주의 이데올로그들만이 아니라, 이후 많은 수의 조선인·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온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37) 같은 책, 330쪽.

식민주의 이데올로그들은 이 독성을 그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악리작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들에게서 다산의 저술은 18·19세기 조선의 병폐상태를 진단하는 징후가 되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실린 징후와 처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 고치는 데로 나아가지 못한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사회의 병폐상태, 그 멸망의 필연성과 식민화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징후가 되기도 했다. ‘지하의 다산이 기뻐할 것’이라며 그 점을 평가해낸 자신들의 학문적 우월성에 대한 주장으로도 삼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시점에서 다산과 그의 저술이 지니는 이 독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다산과 그 저술을 활용하려는 조선인 지식인들에게는 하나의 과제가 되는 셈이었다.

## 2. 식민주의에 대항해 작용한 독성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sup>38)</sup> 근대시기 다산을 재발견하려는 계몽주의·민족주의 지식인들의 지향과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고 명백한 대안도 부재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복고적’이거나 ‘반동적’인 현상으로 읽힐 소지도 지닌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사회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이 이 점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다산이 훌륭한 사상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족주의 계열 지식인들의 다산 열광은 지나치며 일종의 착종이라고 보았다. 앞서 적은 것처럼, 이 상태에서 다산의 저술은 다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지속심화되던 19세기말~20세기 초, 그리고 식민지기 조선사회 자체의 발전과정에 독성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한편에서 조선멸망의 필연성을 설파하려는 일본 식민주의 이데올로그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었고, 다른 한편 『목민심서』가 구사한 논리와 달리 이 시기 조선사회 정치체제의 문제가 결코 내부적인 것으로만 환원될 수 없음은 자명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보편적 발전과정을 보라’

38) 앞의 각주 6 및 7 참조.

고 줄곧 강조했던 배후의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의 입장에서 『목민심서』를 둘러싼 문제로 한정하여 이에 대해 논하자면, 식민화 목전이거나 피식민자 상태였던 조선의 계몽주의·민족주의 지식인들이 약으로 사용하려 했을 때 『목민심서』에 생각 못한 독성이 있었던 것처럼, 식민자 일본인들이 식민통치 정당화를 위한 약으로 쓰려는 순간에도 『목민심서』는 일본인 식민자들을 향해 독성을 내뿜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936년의 『조선출판경찰월보』 중 「조선문 신문지 차압기사요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다.

### 조선민란사화(33)

홍경래의 반란에 대하여 당시 경성에서도 식견 있는 인물은 이 반란의 원인을 긍정하고 있었다. “근래에 계속 부역은 번(繁)하고 또 무거워져서, 관리는 방사음학(放肆淫虐)하여 인민에 안정이 없으며, 여기저기에서 난(亂)을 생각하고 있었다. 홍경래 무리가 몰래 도모하여 난을 일으키고 연말부터 봄에 걸쳐 유언비어가 성(盛)하게 날아다녔다(목민심서).”<sup>39)</sup>

『목민심서』를 통해 조선왕조의 폭정과 관료수령 및 향리의 가렴주구, 백성의 노예적 순종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던 식민자들의 설명과 달리, 그 안에는 ‘순종적’이라고만 묶어둘 수 없는, 폭정에 대한 민심의 거역과 불온한 도전의 양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기사를 차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통해, 우리는 식민자 일본인들도 극찬했던 『목민심서』로부터 식민통치를 향한 독성을 찾아내 기사화하려는 피식민자와, 그것을 감추고 억압하려는 식민자 사이의 대립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복고적’ ‘비과학적’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다산의 인물과 사상을 복권하려는 조선학 운동 역시 식민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온성을 지닌 일임은 분명했다. 다음은 역시 1936년에 종로경찰

39) 警務局圖書課, 「朝鮮文新聞紙差押記事要旨—『朝鮮中央日報』, 『朝鮮出版警察月報』 95, 1936.7. 해당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牧民心書』, 「兵典六條」應變, 『역주 목민심서』 IV, 183~184쪽.



서장이 경찰부장 등에게 발송한 「중국항주항공학교에 입학하려 한 불령선인 검거의 건」이라는 문건에서 안재홍의 범죄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2년간 복역하게 된다.

안재홍은 대정 9년 12월 대구 복심법원에서 제령 위반에 의해 징역 3년에 처해졌음에도 하등 개회(改悔)의 정이 없이 만기 출옥 후에는 합법운동에 의해 조선민족 독립혁명을 달성하고자 항상 내선 양 민족의 융합 불가능을 주장하여 청년남녀의 친일 또는 타협적 사상을 근거로부터 파괴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조선독립운동전선에 서게 하려고 선전선동을 계속해온 자로서 그 마수를 뻗쳐움이 다음과 같다.

(가) 신문기사에 의한 투쟁 …그는 조선총독 정치의 방해가 될 만한 기사 게재를 상사(常事)로 삼아왔을 뿐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즉 소화 10년 여름 정 다산의 백년기념이라 하여 민족주의 선전의 목적으로 조선일보사 지상에 정 다산의 선행 미담을 게재함으로써 민족의식 양양을 도모하였는데, 당시 중앙일보사에서 김태준(명륜학교 교사)이 반박기사로서 동 지에 정 다산을 역사적으로 비판하여 안재홍의 기사는 엉터리이며 서적 광고나 다름없다고 공격하고, 이어서 중앙일보사 김남천은 동 지에 “단군의 사당을 백두산 밀림 속에서 찾아내 자기 집에서 모시는 놈, 이순신의 백골을 파내서 혀끝으로 핥는 놈, 정 다산의 하수구 밑에서 예찬하는 놈” 등의 문구를 이어가며 공격하자, 안재홍은 조선민족주의의 목적 수행에 다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여 조선일보사 지상에 “천대받는 조선”이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 기사를 반박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40)

이 문건에서 거론된 김태준과 김남천의 안재홍 비판 자체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1930년대의 사회주의자에 의해 ‘복고적’ ‘비과학적’이라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근년의 연구에서 ‘일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문화 코드이고 그 전략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했던 안재홍

40) 京城鐘路警察署長, 「中國杭州航空學校ニ入學セントスル不逞鮮人檢舉ノ件」, 朝鮮總督府裁判所, 『警察情報綴(昭和11年)』, 1936.7.11., 21-24쪽.

의 다산 재조명을 ‘신문기사에 의한 투쟁’이라면서 ‘조선독립운동의 전선에 서게 하려는 선전선동’으로서 범죄사실인 점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재홍은 잡지 『삼천리』의 지상대담을 통해 “정다산을 소원(疏遠)히 하였다는 것은 실로 우리들 후인(后人)의 괴수(愧羞)거리지요. 그가 암행어사 격으로 민정을 시찰하고 도라와 지은 「人生若草木, 水土延其支」라고 서두(序頭)한 기민시(飢民詩) 가튼 것은 언언측측(言言測測) 무산인민의 참상을 어(語)하여 지금조차 눈물짓게 합니다. 옛것든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졌든 분이지요.”라고 평하고도 있었다.<sup>41)</sup>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다산 재조명의 ‘복고성’을 인정하더라도, 식민통치 합리화를 위한 약으로 쓰고자 식민자들도 힘을 보탰던 다산의 재조명이 다시 식민통치에 대해 뽐어내게 되었던 독효 역시 명백히 존재했던 것이다.

단지 이 독효를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 애국계몽 지식인이 다산을 재조명할 때부터 이미 부각되고 있었고 일본인 식민주의 이데올로그들도 식민통치 정당화를 위해 주목했던 점, 즉 다산이 체제와 불화하고 그 외곽 주변부에서 불운하게 지내며 그에 저항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불우한 경세가’이자 ‘유배된 개혁사상가’로서 조선왕조에서 주변적 위치에 있는 인물, 이 글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취약지점에서 독이자 약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위치설정은 다산이 조선의 멸망에 대해 책임이 없는, 유배자로서 사실상 외부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식의 서술들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서술들은 조선학 운동의 전개 시기 이전부터 앞서 일본인 식민자들에 의한 다산의 이용과 함께 전개되고 있었으며, 다산의 저술을 제대로 접해본 적도 없는 이들의 보다 대중적인 글들도 이에 한몫 거들고 있었다.

가령 을축년 대홍수로 다산 생가가 물에 떠내려가자, 이 현장을 찾은 기자

41) 『삼천리』 제6권 11호, 1934.11., 「『半島英傑』을 論함—史上의 著名한 英主, 學者, 名將들」, 27쪽.

는 “이번에 모질손 흙탕물에 다 써나가 다산의 유적이 차질 곳이 업슴은 고사하고… 미친 물결이 무덤 우까지 뛰어올를 제 다산의 유혼이 잇다면 웅당 눈물이라도 겨웠을 것”이라면서, 후일 《여유당전서》로 간행될 다산 수고(手稿)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는 이 수고를 건져낸 후손의 노력을 감동적인 필치로 재현한 후, “다산! 조선에 드문 위인으로 생시에도 산림 간에 표탁하여 가진 바 포부를 한 번 펴보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 널리 퍼질 희망이 아즉까지 묘연한 이 세에 집행이 자국, 신에 밝힌 흙덩이까지 물에 끌려 흔적이 업게 됨은 천인의 복이 넘우나 앓음을… 사모하는 정성이 한층 새로운 한편에 다산의 기침소리가 들리는 듯…”이라며 생전 다산의 불우한 처지를 수마(水魔)로 이수라장이 된 1925년의 조선으로 불러내고 있었다.<sup>42)</sup>

2년 뒤 잡지 『별건곤』에는 「지하국 방문기」라는 제목의 독특한 글이 실렸다. “조선을 위하여 걱정하고 조선을 위하여 학문을 닦거 사천년래 경제대가로 세계력사에 내여노아도 붓그림 업슬만한 정 다산 선생이나 지하로 차저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기획이었다. 이 글은 ‘천주교 연좌로 귀양을 와서 아주 불귀의 객이 되어버린’ 다산의 처지가 ‘서양문명 수입’과 ‘국민 경제사상지식 고취’를 의도했던 다산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고관학자들의 시기심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어서 다산으로부터 “도라가거던 상하게급을 물론하고… 그저 담뱃대 부즈르고 상투깎가 집어 내던지고 긴치마 찢고 두루막이 벗고 양복 치우고 족보를 살으고 양반패호 떼여노코 신사청호 덤허두고 그러고서 생존경쟁의 활무대에 나서서 싸워보고 닻호아 보라… 하로라도 알는 사상혁명을 해야지요”라는 사후 다산의 (당연히 허구인) 조언을 전한다.<sup>43)</sup> 다산이 귀양지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한 종류의 혁명가가 아니었다는 점 따위는 돌아볼 여지가 없었다. 지은이에게는 ‘사상혁명’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산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학자였음에도, 또 한말 이래 지식인들에 의해

42) 『시대일보』 1925.8.8., 慎麟範, 「漢江上流 水禍의 慘跡을 차저 (9): 茶山遺跡埋沒」.

43) 『별건곤』 5, 1927.3., 「地下國訪問記, 經濟困難에 울고 잇는 同胞에게—康眞海隅에서 茶山 丁若鏞」, 42~43쪽.

꾸준히 재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기실 그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진 상태는 아니었기에, 위와 같은 오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재홍이 ‘다산은 오늘날로 치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졌던 분’이라는 발언을 했던 잡지 『삼천리』의 지상좌담회에서 사회자인 김동환은 “지금 우리들 대다수의 청년들은 「유년필독」에서 관(冠) 쓰고 강학하든 다산선생의 풍모 이외에 또 그 석유(碩儒)라는 말 이외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 고백하며, 안재홍에게 “과연 그러케 다산의 지위가 높습니까?”라고 묻고 있었다.<sup>44)</sup> 1935년의 신문기사에는 다산이 유배지에 당도했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상례사전』 서문을 언급하며<sup>45)</sup> “그때의 정 다산의 형편은 저 유명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잔발잔』 만콤폴이나 학대를 바든 세움”이라고 해설하였다.<sup>46)</sup> 다산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장발장을 동원해야 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역으로 그만큼 사회 전체의 다산에 대한 이해가 깊지도 넓지도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다산의 저술을 통해 조선사회에 내재적 개혁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산 자신이 조선사회의 내부자도, 외부자도 아닌 위치에 자리매김 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이는 그의 저술이 식민주의에도 민족주의에도 약이면서 독이 되었던 역설적 이중성의 결과일 것이며, 이 역설적 이중성이야말로 다산의 저술인 『목민심서』를 고전의 반열로 밀어올린 힘일 것이다. 이 구도 안에서 그의 불우함의 이미지는 강조

44) 『삼천리』 제6권 11호, 1934.11., 「『半島英傑』을 論함—史上의 著名한 英主, 學者, 名將들」, 26쪽.

45) 다산은 『상례사전(喪禮四箋)』 서(序)에서 신유년(1801) 겨울 옥사로 강진 유배에 처해졌을 당시 현지 주민들이 자신을 피하던 모습을 묘사하면서, ‘유배자 보기를 대독(大毒)이라도 본 듯이 문을 깨고 담을 부수며 달아났다’고 적은 바 있다. 『喪禮四箋』, 《定本 與猶堂全書》 18卷, 35쪽. “當是時, 民之抵流入如大毒, 所至, 皆破門壞牆而走.” 다산 자신은 당시 강진이 ‘추레하고 풍속도 유난스런[卑陋俗殊]’ 곳이었음에 그 한 원인이 있는 듯이도 써내려갔지만, 과장된 표현일 것으로 생각되는 위에, 단순한 정치적 귀양살이도 아닌 천주교 연루로 유배된 상황에서, 강진 사람들이 다산에게 느꼈을 일종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46) 『매일신보』 1935.7.23., 柳光烈, 「丁茶山의 心境」.

되지만 그가 경화사족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잊혀야했고, 아전의 악행에 대한 그의 비판은 주목되지만 아전의 생계와 활동 보장책이 부족하다고 그가 지적한 점은 묻혔다. 그 자신 거대한 유학사상가였으면서 서구문명을 도입하려던 혁명가처럼 재현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애초에 『목민심서』가 시스템의 모순을 낱알이 드러내면서도 그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훌륭히 처신해낼 수 있는지를 밝힌다고 하는 역설적인 작업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이 결국 그의 유학서보다는 경세서가,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말단’이나 ‘지엽’이라고도, 또는 ‘침단’이나 ‘상위’라고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다룬 서적, 가장 실용작현실적인 소품이면서 가장 ‘그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인 저작이기도 한 『목민심서』가 ‘근대적 고전’으로 앞세워진 이유가 아닐까. 그러나 그럼에도 이 저술은 사회의 독성들을 적절히 처리하는 속에 약리가 있을 수 있다는 ‘공동체에 대한 병리학적 상상’의 역설을, 조선 지방 사회의 현실을 생생히 기록분석하는 서술 속에 내밀히 간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초기 근대적 담론투쟁 속에서 결코 다산이 의도논커녕 상상조차 못했을 방식으로 이 내밀한 독성과 약효를 절묘하게 뿜어냄으로써, 『목민심서』는 근대적 고전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전근대의 현실작·구체작·실용적 서적인 『목민심서』를 애국계몽이나 민족주의 고양을 위한 약으로 사용하려던 근대 초기의 지식인들에게, 이 책은 독성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조선사회 외부로부터 점점 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조선사회를 지배하려 드는 위협에 대해, 그 위협이란 실은 조선사회 자체가 지니고 있던 병폐

를 조선사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파악이 지금 시점에서야 가능한 ‘논리적 해석’이 아니라 ‘역사적 실재’였다는 점, 이 독성을 조선에 진출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적절히 활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식민화를 ‘예지’했던 것이 아닌 한(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다산 자신이 그 독성을 고안해내던 시점에서는 당연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다산이 『목민심서』 내에 현실의 생생한 기술을 통해 조선사회를 위한 약리와 독효를 동시에 주입하는 순간, 그것은 이 책에 부여된 운명적 속성과도 같은 것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그것이 민족문화의 자산이면서 동시에 그에 대해 독으로 작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계몽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내걸었던 조선의 지식인들 역시 일본인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들과 대차 없이 인식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이들은 다산의 처방이 ‘멸망한 조선왕조’에서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지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와 결탁한 국내의 정치적 지배층이 탐학과 가렴주구를 일삼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당대의 조선사회’에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 점에서는 다산이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일종의 지적 도약이 근대초기 조선의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 도약이 가능했던 것은, 근대초기의 지식인들이 다산과 『목민심서』를 구체적인 시스템 분석이 아니라 일종의 추상적인 정치학 이론이나 당대의 현실에 대한 우화처럼 여겼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를 구체적이었던 처방의 추상화에 따른 효과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추상화에 의해 『목민심서』의 처방이 근대적 유용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자, 근대초기의 상황에서 약으로서 『목민심서』가 지니는 독성은 조선인 내부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식민자와 조선 피식민자 양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초기의 시점에서 이 독성/약효는 아직 정확한 형상을 갖추지 않아 어떤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분간되어 있지 않았다. 또 그것이 그 독성으로 인해 발휘할 수 있는 약리작용은 결코 그 독소의 당대(근대초기)적 쓰임새로 국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도 했다. 1930년대의 조선학 운동은 근대초기를 넘어 근대가 본격화한 국면에서 식민지 조선사회가 발견해낸 그 한 중요한 쓰임새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1930년대 풍의 조선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저술의 가능한 쓰임새가 제한될 수도 없으며, 이 역시 이러한 독소의 본성과 관련한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책이 1930년대가 아닌 근대초기의 국면에서 일본인 식민주의 이데올로그들에게도, 조선의 계몽주의·민족주의 지식인들에게도 약이자 독으로 작용했던 상황을 우리는 이 글에서 확인했다. 전자에게서는 다산 개혁론의 주변적이고도 불우한 위치가 조선 멸망의 필연성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후자에게서는 조선 멸망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내재적 개혁의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설정은 다시 각기의 방식에 의한 ‘다산에 대한 오독’을 수반하였고, 이 오독에 의한 전유와 그 임상적 유용성이야말로 『목민심서』를 둘러싼 19세기 지식지형과 20세기 지식지형 사이의 가교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자료

-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별건곤』, 『삼천리』  
丁若鏞, 「自撰墓誌銘」, 다산학술문화재단, 《定本 與猶堂全書》 3卷, 2012, 252~281쪽.  
\_\_\_\_\_, 『喪禮四箋』, 다산학술문화재단, 《定本 與猶堂全書》 18卷, 2012.  
\_\_\_\_\_, 『牧民心書』, 廣文社, 1902.  
\_\_\_\_\_(金宇植 編), 『牧民心書正文』, 博文社, 1904.  
\_\_\_\_\_(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I, 창작과비평사, 1978.  
\_\_\_\_\_(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II, 창작과비평사, 1979.  
\_\_\_\_\_(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IV, 창작과비평사, 1984.  
\_\_\_\_\_(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V, 창작과비평사, 1985.  
警務局圖書課, 「朝鮮文新聞紙差押記事要旨—『朝鮮中央日報』, 『朝鮮出版警察月報』 95, 4~7쪽.  
京城鐘路警察署長, 「中國杭州航空學校ニ入學セントスル不逞鮮人檢舉ノ件」, 朝鮮總督府裁判所, 『警察情報綴(昭和11年)』, 1936.7.11.  
水野練太郎, 「牧民心書の紹介」, 『朝鮮』 79, 52쪽.  
丁若鏞(今村鞆 譯), 『民籍調査參考資料: 牧民心書抄譯』, 1909.  
\_\_\_\_\_(細井肇 譯), 『牧民心書』, 東京: 自由討究社, 1921.  
朝鮮總督府, 『朝鮮圖書解題』, 京城: 日韓印刷株式會社, 1915.  
「朝鮮文新聞紙差押記事要旨—『朝鮮中央日報』, 『朝鮮出版警察月報』 95, 1936.7  
淺見倫太郎, 『朝鮮法制史稿』, 東京: 巖松堂書店, 1922.

### 2. 논저

- 고동환, 「19세기 후반 지식세계의 변화와 다산 호출의 성격」, 『다산과 현대』 4:5  
합본호, 2012, 25~48쪽.  
김진균, 「근대개몽기(1894~1910)의 다산 호출」, 『다산과 현대』 4:5합본호,  
2012, 49~68쪽.  
김치완, 「정인보의 다산-실학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사와 실학』 50,



2013, 75~98쪽.

김태영, 「목민심서의 역사적·현실적 소임」, 『다산학』 28, 2016, 7~16쪽.

김 호, 「새로운 중세인가 혹은 포스트모던인가: 20세기 초 주자학자 조공섭의 정약용 비판」, 『한국실학연구』 32, 2016, 425~455쪽.

다카하시 도오루(조남호 역), 『조선의 유학』, 소나무, 1999.

라투르, 부르노(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박홍식, 「일제강점기 정인보·안재홍·최익한의 다산 연구」, 『다산학』 17, 2010, 45~93쪽.

송양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인시순속(因時順俗)’적 지방재정 운영론」, 『다산과 현대』 7, 2014, 175~222쪽.

신용하, 「19세기 말 장지연의 다산 정약용의 발굴」, 『한국학보』 29(1), 2003, 2~21쪽.

신주백, 「1930년대 초중반 조선학 학술장의 재구성고 관련한 시론적 탐색: 경성 제대 졸업자의 조선연구 태도 및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26, 2011, 85~109쪽.

최익한(송찬섭 편), 『실학과와 정다산』, 서해문집, 2011.

최재목, 「일제강점기 정다산 재발견의 의미: 신문·잡지의 논의를 통한 시론」, 『다산학』 17, 2010, 95~131쪽.

———, 「1930년대 조선학 운동과 ‘실학자 정다산’의 재발견」, 『다산과 현대』 4·5합본호, 2012, 69~101쪽.

강길택, 조르주(이광래 역), 『정상과 병리』, 한길사, 1996[원본초간 1966].

Esposito, Roberto(Translated by Zakiya Hanafi), *Immunitas: The Protection and Negation of Life*, Polity Press, 2011[First published in Italy, 2002].

Harris, Jonathan Gil, *Foreign Bodies and the Body Politic: Discourses of Social Pathology in Early Modern England*, Cambridge Univ. Press, 1998.

Abstract

## Early Modern Appropriation of *Mokminsimseo*, the Premodern Practical Guidebook that Became a Modern Classic

Ahn, Seung-taik

This article analyzes the rebirth of *Mokminsimseo*(牧民心書) as a classic in the early modern times, in which process the premodern practical guidebook totally changed its meanings in the modern social context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one that the book was born. In this article, this process is regarded as manifestation of dual efficacy or paradoxical duality which works as both medicine and poison.

*Mokminsimseo* was proposed by the early-modern Enlightenment intellectuals as the book containing the practical prescriptions for the modernizing local and national politics. For this purpose, the concreteness of the prescriptions originally made by its author, Dasan Jeong Yak-yong, was subdued, and replaced by assertion of the abstract criticisms on the system of premodern Joseon Dynasty. Through this abstraction, *Mokminsimseo* could be accepted as the token of the national ability for endogenous modernization by Korean intellectuals, but at the same time, could be used as the evidence for the necessariness of demise of Joseon Dynasty and colonization of Korea by Japanese colonizers.

These mean that *Mokminsimseo* could have worked as both medicine and poison both for the colonizers and for the colonized. This paradoxical duality was inscribed in the book by Dasan through the vivid description of rural political structure and its realities, and the discursive struggles between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that Dasan never had intended nor even imagined made this book as a modern classic in the early modern contexts.

**keywords:**

the Enlightenment, nationalism, colonialism, discursive struggle, paradoxical duality

